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06 2016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열왕기상 · 열왕기하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6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9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6

201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3교구	2 16교구	3 9교구	4 전교인
5 전교인	6 전교인	7 18교구	8 8교구	9 17교구	10 6교구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10교구	15 7교구	16 13교구	17 5교구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전교인	21 14교구	22 4교구	23 11교구	24 1교구	25 전교인
26 전교인 제3차 학습세례식	27 전교인	28 12교구	29 2교구	30 15교구		

교회 주요 일정

6월 26일

제3차 학습세례식

6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명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도미유와 클로이에서

영광의 사랑은 그대에게 임하기를

영광의 사랑

영광의 사랑은 그대에게 임하기를

영광의 사랑은 그대에게 임하기를

영광의 사랑은 그대에게 임하기를

영광의 사랑은 그대에게 임하기를

영광의 사랑은 그대에게 임하기를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본문 열왕기상 20:1~12 찬송가 342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아합을 향하여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했지만 아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아람 주변의 여러 소왕국들을 통합하여 근동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긴장관계를 유지하였던 북이스라엘도 자기 세력 하에 두기 위하여 자신이 통합한 아람의 32개 소왕국의 왕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아합의 처자와 은금과 귀한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심지어는 아합의 신하들의 재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하는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1~3절). 아합 왕은 처음에는 이러한 벤하닷의 요구에 최대한 비굴한 자세를 보이며 협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과 논의한 후에 벤하닷의 요구를 조건부로 들어주겠다 함으로써(4~8절)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아람의 연합군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9~12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의 벤하닷의 공격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사단은 늘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조금씩만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조금의 양보가 밀물 때의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회유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1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삼십이 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곳을 치며
 2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3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
 도 내 것이니라 하매 4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
 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5 사신들이 다시 와
 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7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
 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8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9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10 그 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
 니라 하매 11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12 그 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
 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
 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람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본문 열왕기상 20:13~30 찬송가 353장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21절까지는 아람과의 첫 번째 전투의 승리의 장면이고, 22~30절까지의 말씀은 그 다음에 벌어진 제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먼저 13~21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굴욕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을 면담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각 도의 지방 방백들의 용사들로 하여금 이번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라고 작전까지 지시해주었습니다(13~14절). 아람 왕 벤하닷은 32명의 소왕국의 왕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16절). 교만한 벤하닷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에게 크게 패배하였고 벤하닷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했습니다(17~21절). 그리고 이어지는 22~30절까지는 제 2차 아람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의 전쟁 역시 북이스라엘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성경기자는 아람과 이스라엘 두 진영을 비교하기를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 적은 두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26~27절).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아람 사람들을 죽였고, 그나마 살아서 아백 성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성이 무너짐으로 2만 7천 명이나 몰살을 당했고, 벤하닷은 성의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 숨었습니다(28~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싸움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악의 세력과 담대히 싸우게 하옵소서.

¹⁵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¹⁶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¹⁷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¹⁸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이백삼십이 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칠천 명이라 ¹⁹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삼십이 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²⁰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²¹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려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²²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²³각각 적군을 쳐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²⁴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²⁵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²⁶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²⁷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²⁸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²⁹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백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³⁰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³¹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³²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칠 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십만 명을 죽이매 ³³그 남은 자는 아백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이만 칠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본문 열왕기상 20:31~43 찬송가 368장

>>> 본문 해설

전력상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강한 아람의 군대를 격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치 자신이 승리한 양 벤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아합이 모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벤하닷의 교만을 꺾고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은 물론 만천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서 패한 벤하닷이 목숨을 구걸하자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31~34절). 이것은 승리자의 아량이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된 아합의 교만함이 벤하닷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처사였습니다(35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벤하닷을 살려준 아합을 향하여 벤하닷의 생명 대신 아합의 생명을 취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35~43절).

아합의 입장에서는 벤하닷이 굶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목숨을 구걸하러 왔을 때 정말 기분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긴 것을 알았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예언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였던 벤하닷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만히 행하였던 아합에 대한 심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주인의 뜻에 따르는 충성됨과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31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32 그들이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3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35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겹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7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8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 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 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 종이 이리 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41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2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 하리라 하셨나이다 43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본문 열왕기상 21:1~16 찬송가 250장

》》 본문 해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양도나 매도, 착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규례(레 25:23)를 어기고 아합이 이세벨의 간악한 꾀계를 따라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은 아합의 별궁 가까이에 조상 때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포도원 땅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땅을 매입하여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1~2절). 하지만 나봇은 이 땅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라고 말하며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은 단지 이 땅이 자신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자산의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었기에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기분이 상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4절). 이 모습을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후에(5~14절) 그 땅을 빼앗아 아합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16절). 아합과 이세벨의 이러한 행위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고대 근동의 이방 군주들처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한 사악한 범죄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남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²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³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도 하니 ⁴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⁵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⁶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⁷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⁸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⁹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¹⁰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¹¹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¹²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¹³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¹⁴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¹⁵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¹⁶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본문 열왕기상 21:17~29 찬송가 295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사악한 범죄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과 그의 가문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아합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고 하나님은 심판의 시행을 유보하셨습니다. 사실 이세벨의 잔혹한 음모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16절의 장면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할 정도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불합리함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일과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 아합의 가문이 파멸에 이를 것과(20~22절) 아합과 이세벨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23절)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27절).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함을 보였기에 아합 가문 전체에 미치는 파멸의 예언이 그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29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함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철회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동시에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¹⁷ 여호와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¹⁸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¹⁹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개들이 나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²⁰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²¹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²²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하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²³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²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²⁵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²⁶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²⁷ 아합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들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물이 죽어 다니더라 ²⁸ 여호와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²⁹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본문 열왕기상 22:1~12 찬송가 375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22장 1~40절까지 이어지는 아합과 벤하닷의 제3차 전투와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의 시작 부분으로 길르앗 라못 수복을 위한 남북 이스라엘의 동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승리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사이에 긴장 관계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이 전쟁에서 질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실행을 유보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그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아합의 초청을 받은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회복을 위한 군사 동맹을 맺은 후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여호와와의 신탁을 구하도록 아합에게 요청했습니다(5절). 이에 아합은 궁중 선지자 400명 가량을 불러모아 그들의 신탁을 구하였는데, 이들은 한결 같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6~12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주실 때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책망과 심판이 아닌 영광과 칭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¹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냈더라 ²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³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⁴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⁵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여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⁶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⁷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⁸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⁹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¹⁰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¹¹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찢려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¹²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왕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본문 열왕기상 22:13~28 찬송가 526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22장 1~12절까지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어 길르앗 라못의 수복을 피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합이 죽게 될 것이란 예언이 보도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하라고 그에게 조언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13~14절). 왕 앞에 선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앞의 400여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아합의 죽음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들까지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17~23절). 이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작정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를 듣는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자초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제공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러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참된 선지자 미가야를 핍박(24~28절)함으로써 끝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작정된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며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는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의 전조입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승리할 것이라는 400여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한 사단의 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데 형통합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의 유기입니다.

》》 기도 제목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¹⁵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¹⁶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¹⁷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라 그와 함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¹⁸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¹⁹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²⁰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²¹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²²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꺾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²³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꺾겠나이다 ²⁴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꺾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²⁵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²⁶그나이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²⁷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²⁸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²⁹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³⁰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 어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본문 열왕기상 22:29~40 찬송가 527장

》》 본문 해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2장 29~40절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3차 전쟁에 참여했고 우연한 사고로 아합이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출전을 감행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피를 내어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 군사들 사이에 들어가 싸우기로 하고 대신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왕복을 정제하고 싸움을 지휘하게 하였습니다(30절). 한편 아람은 지난 2차례의 굴욕적인 패배의 치욕을 씻기 위하여 오직 아합만을 집중 공격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31절). 이로 인하여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아합으로 오인되어 아람 군사들의 집중 공격의 표적이 되어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반면에 변장을 하고 군인들 사이로 숨어든 아합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복을 입고 싸운 여호사밧은 무사했던 반면 아합은 아람 군사 중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지만 치열한 싸움으로 인하여 도망도 치지 못하고 과다 출혈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32~40절).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으로 종결되었으며 미가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합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에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러한 고집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 하라 하시면 그만하고 서라 하시면 멈춰 서는 겸손한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욕심을 꺾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²⁹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³⁰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³¹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삼십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³²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³³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³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³⁵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³⁶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³⁷ 왕이 이미 죽으매 그의 시체를 떼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³⁸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핏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³⁹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아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⁴⁰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본문 열왕기상 22:41~53 찬송가 288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41~50절에서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의 사적을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35세에 왕위에 즉위하여 25년간(B.C. 872~848)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42~43절). 열왕기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역시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43절).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편 44~50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오빌의 금을 실어오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였으나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다는 것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거절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건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아하시야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51~53절까지는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악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로보암의 길과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기자는 여기에 그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이세벨이 아합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으로 임하였을 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비참한 결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것입니까?

» 기도 제목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⁴²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⁴³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삼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아십오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⁴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⁴⁵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⁴⁶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⁴⁷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⁴⁸ 그 때에 예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⁴⁹ 여호사밧이 다스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예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⁵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⁵¹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⁵²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십칠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⁵³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⁵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본문 열왕기하 1:1~12 찬송가 212장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야 왕 (B.C. 853~852년)에 대한 기사로서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왕궁 다락에서 낙상하여 중병에 걸리자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Baal-Zebub)에게 자신의 치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야가 선민의 자손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셨고 그가 죽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1~8절).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경고를 들은 아하시야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군사들을 보내어 자신을 저주한 엘리야를 체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 복속되었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백 여년 이상 속국으로 있었는데 배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배신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이 들었는데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는지에 대해서 물으려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압의 배신을 통해서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심판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¹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²아합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예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³여호와와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예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⁴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⁵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⁶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예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라 ⁷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⁸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⁹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¹⁰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¹¹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¹²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본문 열왕기하 1:13~18 찬송가 190장

》》 본문 해설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통해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대신 군사들을 두 차례나 보내 엘리야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판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마치 강박한 애굽의 바로와 같이 또 다시 엘리야를 잡기 위해 오십 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파송된 오십부장은 앞서 죽임을 당한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앞서 두 명은 엘리야를 향해 빨리 내려오라고 명령했지만, 세 번째 오십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지금은 명령할 때가 아니라 눈물로 간청할 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왕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바로 세 번째 오십부장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했고,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엘리야를 체포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기회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13~16절).

오십부장과 함께 아하시야 왕 앞으로 간 엘리야는 아하시야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금 지적하고 반드시 그가 죽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식언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7~18절).

》》 기도 제목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주를 의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소서.

¹⁵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¹⁶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¹⁷여호와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¹⁸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나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¹⁹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와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²⁰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 하였느냐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본문 열왕기하 2:1~14 찬송가 196장

»» 본문 해설

엘리야의 승천이 다가오자 엘리사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뽀엘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와 동행했습니다. 요단 강 가에서 겹옷을 맡아 물을 쳐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한 후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자신에게 임할 것을 구했습니다. 이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물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삶고 엘리야를 따라나설 만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야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망을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1~10절).

불수레와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하는 엘리야를 지켜본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반복해 소리쳤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적 아버지로 존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구한 ‘갑절’(9절)은 만아들에게 주는 유산의 분량을 의미하는데, 이런 표현에서도 엘리야의 영적 아들로 인정받기 원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을 뿐 아니라 그의 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으며, 스승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성도는 바른 믿음을 세우고 그 신앙 유산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11~14절).

»» 기도 제목

나의 기도가 세상을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책임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¹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²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뵈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뵈엘로 내려가니 ³뵈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⁴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⁵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⁶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⁷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⁸엘리야가 겹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⁹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명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¹⁰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¹¹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¹²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¹³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겹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¹⁴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본문 열왕기하 2:15~25 찬송가 366장

>>> 본문 해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엘리사의 제자들은 혹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다가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지 모르니 찾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사의 영적 판단이 사실로 판명되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믿음도 마지막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15~18절). 한편, 어느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소금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면 소금이 식물에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읍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물로 인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19~22절).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벳엘로 향하는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 “대머리어, 대머리어”라며 조롱하자 여호와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암골 두 마리가 수풀에서 나와 사십이 명을 찢어 죽여 버렸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란 영적, 도덕적으로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큼니다. 더욱이 벳엘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영적 타락의 온상이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23~25절).

>>> 기도 제목

믿음이 없어 저주를 자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⁶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⁷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와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⁸우리가 그로 부끄러워 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⁹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¹⁰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¹¹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¹²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¹³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¹⁴엘리사가 거기서 벳엘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며 올라가라 대머리며 올라가라 하는지라 ¹⁵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¹⁶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본문 열왕기하 3:1~12 찬송가 93장

>>> 본문 해설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된 여호람은 12년의 재위기간 동안 부친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오므리 왕조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종교개혁을 시행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2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3절) 인물로 최종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알의 주상은 없애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 창건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와 제사제도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1~3절).

한편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은 아합 왕이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밋, 그리고 에돔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모압을 징벌하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도중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사람은 위태로운 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이때 여호람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밋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 “여호와와 선지자”가 없는지 수소문하여 결국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위기와 곤경에 처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곤경에 처할수록 원망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¹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²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하였음이라 ³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⁴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⁵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⁶그 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⁷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⁸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⁹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칠 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¹⁰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¹¹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¹²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본문 열왕기하 3:13~27 찬송가 543장

» 본문 해설

모압과의 전쟁길에서 물이 없어 곤경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 연합군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신앙이 없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문에 연합군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사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면 물을 얻을 것이며,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건기에는 땅속 깊은 곳까지 말라 있어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다음날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고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 메마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13~20절).

다음날 모압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이스라엘 연합군이 머물던 골짜기에 해가 비치며 물이 붉게 보이는 것을 보고 연합군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피로 물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이에 모압군은 연합군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노략하러 내려왔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결국 모압땅은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연합군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압의 수도였던 길하레셋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모압 왕은 급기야 자신의 말아들을 그 모스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만행을 질렀습니다. 이에 연합군은 철군했고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21~27절).

» 기도 제목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¹³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이다 하니라 ¹⁴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¹⁵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와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¹⁶그가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이다 ¹⁷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이다 ¹⁸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¹⁹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²⁰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²¹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²²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므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²³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²⁴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²⁵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²⁶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칠백 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²⁷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본문 열왕기하 4:1~16 찬송가 419장

» 본문 해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남겨진 빚으로 그의 두 아이까지 노비로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돌볼 것을 율법에 명시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과부는 엘리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과부는 이 말씀에 순종했고, 빈 그릇 모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과부는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풍족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1~7절).

한편, 엘리사가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를 자주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쉴 수 있는 작은 방까지 마련해 준 수넬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정성과 배려에 감사하여 그녀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마침 그녀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게 된 엘리사는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까닭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마 25:40)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8~16절)

»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²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³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⁴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⁵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⁶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⁷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⁸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⁹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¹⁰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¹¹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¹²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¹³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¹⁴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¹⁵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¹⁶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본문 열왕기하 4:17~37 찬송가 364장

》》 본문 해설

엘리사의 축복대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아들이 추수하는 밭에 나갔다가 머리의 고통을 호소한 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자, 여인은 장례를 치르는 대신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수넴 여인을 발견한 엘리사는 그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그녀에게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물음에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발을 끌어안고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17~28절).

수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미 죽어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엘리사는 문을 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각 부분을 아이 몸의 각 부분에 대고 얹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아들을 안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29~37절).

》》 기도 제목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¹⁷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¹⁸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¹⁹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아 내 머리아 하는 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²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²¹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²²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²³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²⁴ 이에 나귀에 안장을 자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²⁵ 드디어 길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넬 여인이 있도다 ²⁶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²⁷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²⁸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²⁹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³⁰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³¹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³²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³³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³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³⁵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³⁶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넬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³⁷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본문 열왕기하 4:38~44 찬송가 500장

>>> 본문 해설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그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매우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게 하였는데, 한 사람이 들에서 따온 들호박을 찧어 솥에 넣는 바람에 그 독이 솥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들호박을 70인역에서는 ‘콜로신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의 열매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먹어도 구토를 일으키고, 다량을 먹을 경우 사망할 정도의 맹독이라고 합니다. 국을 먹던 중에 제자들이 이상증세를 느끼고 솥에 독이 들어 있다고 하자 배가 고파도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곡식가루를 솥에 던져 넣은 후 제자들에게 다시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독이 사라졌고 제자들은 마음껏 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가루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의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 국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맛볼 수 있었습니다(38~41절).

한편, 이러한 기적으로도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선지자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떡 한 개를 먹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자, 그 말씀대로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가루와 얼마 되지 않는 떡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42~44절).

>>> 기도 제목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³⁸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술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³⁹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⁴⁰ 이에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⁴¹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⁴²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이십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⁴³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⁴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본문 열왕기하 5:1~14 찬송가 272장

» 본문 해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할 만큼 용맹한 사람이었고,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이 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절망 중에 있던 어느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한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소녀는 엘리사라면 반드시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확신에 찬 말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친서와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말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그에게 찾아온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1~6절).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나아만은 자신을 맞이하기는커녕 단지 사환을 보내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지시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별한 치유 의식을 기대했던 그는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판단해 다메섹의 강들이 요단 강보다 훨씬 좋다며 떠나려 하지만, 수행하는 종들의 충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자 나병이 씻은 듯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여섯 번까지가 아니라 일곱 번까지 전폭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7~14절).

» 기도 제목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소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²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³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 ⁵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⁶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⁷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⁹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¹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¹¹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¹²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¹³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¹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본문 열왕기하 5:15~27 찬송가 436장

>>> 본문 해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예물 드리는 것은 포기하고 아람으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림몬 신당에서 왕의 제사를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어떤 신도 없다고 고백하는 나아만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15~19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자, 그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 일행을 쫓아가 엘리사가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했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준 예물을 받아 집에 몰래 감췄습니다. 이를 안 엘리사가 추궁을 하자 게하시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또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병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챈 게하시를 향해 나아만의 나병이 그와 그 자손에게 임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게하시의 말씀대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20~27절).

>>> 기도 제목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헛된 탐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오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나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예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나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본문 열왕기하 6:1~13 찬송가 384장

>>> 본문 해설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 중 많은 것들이 선지 생도들과 연관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선지 생도들과 연관된 엘리사의 또 다른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선지자들이 제자 훈련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지 생도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벌목을 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이 도끼를 강물에 빠트렸습니다. 그 때 엘리사는 빌려온 도끼 한 자루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의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한 사소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강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좋을 일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시 37:5~6)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악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¹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²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가져다가 그 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³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⁴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⁵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⁶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⁷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⁸그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잔을 치리라 하였더니 ⁹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¹⁰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¹¹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¹²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¹³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열왕기하 6:14~23 찬송가 407장

>>> 본문 해설

아람 왕의 엘리사 급습은 그가 용병의 귀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몇 번에 걸친 이스라엘 급습이 엘리사에 의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받았을 때에 그는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광석화와 같이 엘리사를 급습함으로써 위기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엘리사의 사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깊이 탄식한 데서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15절). 그러나 이처럼 용병에 귀재인 아람 왕도 결정적으로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람 왕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사환조차 모르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거처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의 거처에 도착하여 물설 틈없이 진영을 구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서 엘리사의 등 뒤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내습한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엘리사가 태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 기도 제목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8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9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 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10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1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12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13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놀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말씀의 만남을 들을지어다

본문 열왕기하 6:24~7:2 찬송가 545장

» 본문 해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해결되고 사마리아가 구원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신임을 받던 장관은 엘리사를 통해 예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웃듯이 엘리사의 예언에 대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2절). 이에 대해 엘리사는 그 장관을 향하여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간혹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지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칫 맹신이나 미신을 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인간 이성이나 지식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씀마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²⁴이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²⁵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²⁶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²⁷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돌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²⁸또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²⁹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살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³⁰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 ³¹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돛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니라 ³²그 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³³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¹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²그 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본문 열왕기하 7:3~8:6 찬송가 505장

» 본문 해설

사마리아 구원에 대한 엘리사의 예고는 전혀 예기치 않게 성 어귀에 기거하던 네 사람의 나병환자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9절에 나병환자들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라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일까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네 명의 나병환자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아람 군대에 투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투항하기 위해 해질 무렵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으나 그들의 진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이 비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말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헛 사람과 애굽 용병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오는 소리로 오인하여 진지와 군대 보급품을 그대로 둔 채 급히 퇴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병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오늘은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요 3:16).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퍼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이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3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5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8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 가서 성을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태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는지라 11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12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산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13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14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16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1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온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19 그 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1 엘리사가 이전에 이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 그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나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태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본문 열왕기하 8:7~24 찬송가 546장

» 본문 해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편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개인이나 가문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무서운 질병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만큼은 지켜 주신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까지도 소개합니다. 곧 여기에서 이처럼 유다가 가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는 이유는 비록 다윗의 후손이 범죄해서 징계를 당할지라도 다윗의 혈통과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실지언정 그 왕위를 폐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삼하 7:14~16).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온 세상의 주관자 이시며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적 산물입니다. 어느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7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9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사십 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10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오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11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12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아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뺨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애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14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15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오년에 여호사밋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밋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통치하니라 18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20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21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22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23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4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본문 열왕기하 8:25~9:10 찬송가 430장

» 본문 해설

여호람을 이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에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길을 따르며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 곳에 병 문안하러 왔다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맺어진 정략 결혼이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화근이 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유대 관계를 지속시키다가는 자신도 악에 물들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당하는 재앙에 함께 빠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지금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는 것만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지만 악인(세상)과 교제하면 결국에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26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십이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27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28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29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히니라 30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에 이르거든 남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4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나이다 하는지라 6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나

본문 열왕기하 9:11~29 찬송가 370장

>>> 본문 해설

병든 왕에게 자신의 유력한 부하 장수가 온다는 것은 대단히 안심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도래를 알리는 전갈을 들었을 때에 요람은 유난히 평안의 일로 예후가 나오는지를 물었습니다(18~19, 22절). 그에게 일말의 불안한 그림자가 덮여오고 있었음을 요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평안을 묻는 요람에 대한 예후의 답변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사람들이 지니는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스데반은 비록 돌로 맞는 죽음의 상황에서 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행 6:15; 7:60).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아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19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20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21 이에 남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22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23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24 이스라엘 당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25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하는지라 26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27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남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28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매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9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30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31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32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3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러즉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34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35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36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십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 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루셨도다

본문 열왕기하 9:30~10:14 찬송가 268장

»» 본문 해설

아합 일가에 대한 예후의 심판은 철저히 단행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을 몰살시킨 예후는 이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합 일가마저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심판은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후는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데 이어, 아합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알에게 제사하는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서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골라내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결국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바알의 신당은 화장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바알은 아무 힘도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며, 동시에 그를 심판한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남겨놓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며, 그 때가 가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 기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묵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³⁰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³¹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안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³²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³³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³⁴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³⁵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³⁶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중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³⁷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²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³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⁴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⁵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⁶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부치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칠십 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⁷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칠십 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⁸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⁹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¹⁰그러나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¹¹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 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¹²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¹³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¹⁴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뒤편에 결어서 죽이니 사십이 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본문 열왕기하 10:15~36 찬송가 270장

>>> 본문 해설

예후는 바알 숭배의 잔재를 뿌리 뽑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으며,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이 있던 자리를 화장실로 만들어 그곳을 더 이상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 이후 계속 숭배해 온 벤엘과 단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현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위한 그의 열정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 예후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믿음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열심이 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제아무리 열심이 특성이고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모든 일에 나의 열심과 열정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하옵소서.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
 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
 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
 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
 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
 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
 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획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
 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
 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와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팔십 명을 밖에 두어 이르되 내가 너
 희 손에 넘겨 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
 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찢으며 바알의 신당
 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벵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
 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
 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
 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
 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
 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
 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
 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
 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
 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햇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본문 열왕기하 11:1~12 찬송가 435장

》》 본문 해설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왕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6년 동안 몰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숨어 지낸지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비밀리에 치밀하게 일을 꾸미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이 남유다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다윗 언약은 단순히 다윗 왕권에 관한 약속만은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실 것과 그를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떠한 궤방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단의 어떠한 간계와 궤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궤방하려는 사단의 집요한 시도는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단의 끈질긴 궤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종말의 때까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²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³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와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⁴ 일곱째 해에 여호아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와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⁵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삼분의 일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⁶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⁷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와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⁸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⁹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아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아다에게 나아오매¹⁰ 제사장이 여호와와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¹¹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¹² 여호아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6월 1일 수요일

1 Kings 20:1~12

- 1 Now Ben-Hadad king of Aram mustered his entire army. Accompanied by thirty-two kings with their horses and chariots, he went up and besieged Samaria and attacked it.
- 2 He sent messengers into the city to Ahab king of Israel, saying, "This is what Ben-Hadad says:
- 3 'Your silver and gold are mine, and the best of your wives and children are mine.'"
- 4 The king of Israel answered, "Just as you say, my lord the king. I and all I have are yours."
- 5 The messengers came again and said, "This is what Ben-Hadad says: 'I sent to demand your silver and gold, your wives and your children.
- 6 But about this time tomorrow I am going to send my officials to search your palace and the houses of your officials. They will seize everything you value and carry it away.'"
- 7 The king of Israel summoned all the elders of the land and said to them, "See how this man is looking for trouble! When he sent for my wives and my children, my silver and my gold, I did not refuse him."
- 8 The elders and the people all answered, "Don't listen to him or agree to his demands."
- 9 So he replied to Ben-Hadad's messengers, "Tell my lord the king, 'Your servant will do all you demanded the first time, but this demand I cannot meet.' " They left and took the answer back to Ben-Hadad.
- 10 Then Ben-Hadad sent another message to Ahab: "May the gods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enough dust remains in Samaria to give each of my men a handful."
- 11 The king of Israel answered, "Tell him: 'One who puts on his armor should not boast like one who takes it off.'"
- 12 Ben-Hadad heard this message while he and the kings were drinking in their tents, and he ordered his men: "Prepare to attack." So they prepared to attack the city.

6월 2일 목요일

1 Kings 20:13~30

- 13 Meanwhile a prophet came to Ahab king of Israel and announced,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you see this vast army? I will give it into your hand today, an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 14 "But who will do this?" asked Ahab. The prophet replied,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 young officers of the provincial commanders will do it.' " "And who will start the battle?" he asked. The prophet answered, "You will."
- 15 So Ahab summoned the young officers of the provincial commanders, 232 men. Then he assembled the rest of the Israelites, 7,000 in all.
- 16 They set out at noon while Ben-Hadad and the 32 kings allied with him were in their tents getting drunk.
- 17 The young officers of the provincial commanders went out first. Now Ben-Hadad had dispatched scouts, who reported, "Men are advancing from Samaria."
- 18 He said, "If they have come out for peace, take them alive; if they have come out for war, take them alive."
- 19 The young officers of the provincial commanders marched out of the city with the army behind them
- 20 and each one struck down his opponent. At that, the Arameans fled, with the Israelites in pursuit. But Ben-Hadad king of Aram escaped on horseback with some of his horsemen.
- 21 The king of Israel advanced and overpowered the horses and chariots and inflicted heavy losses on the Arameans.
- 22 Afterward, the prophet came to the king of Israel and said, "Strengthen your position and see what must be done, because next spring the king of Aram will attack you again."
- 23 Meanwhile, the officials of the king of Aram advised him, "Their gods are gods of the hills. That is why they were too strong for us. But if we fight them on the plains, surely we will be stronger than they."

24 Do this: Remove all the kings from their commands and replace them with other officers.

25 You must also raise an army like the one you lost--horse for horse and chariot for chariot--so we can fight Israel on the plains. Then surely we will be stronger than they." He agreed with them and acted accordingly.

26 The next spring Ben-Hadad mustered the Arameans and went up to Aphek to fight against Israel.

27 When the Israelites were also mustered and given provisions, they marched out to meet them. The Israelites camped opposite them like two small flocks of goats, while the Arameans covered the countryside.

28 The man of God came up and told the king of Israel, "This is what the LORD says: 'Because the Arameans think the LORD is a god of the hills and not a god of the valleys, I will deliver this vast army into your hands, and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29 For seven days they camped opposite each other, and on the seventh day the battle was joined. The Israelites inflicted a hundred thousand casualties on the Aramean foot soldiers in one day.

30 The rest of them escaped to the city of Aphek, where the wall collapsed on twenty-seven thousand of them. And Ben-Hadad fled to the city and hid in an inner room.

6월 3일 금요일

1 Kings 20:31~43

31 His officials said to him, "Look, we have heard that the kings of the house of Israel are merciful. Let us go to the king of Israel with sackcloth around our waists and ropes around our heads. Perhaps he will spare your life."

32 Wearing sackcloth around their waists and ropes around their heads, they went to the king of Israel and said, "Your servant Ben-Hadad says: 'Please let me live.' " The king answered, "Is he still alive? He is my brother."

33 The men took this as a good sign and were quick to pick up his word. "Yes, your brother

Ben-Hadad!" they said. "Go and get him," the king said. When Ben-Hadad came out, Ahab had him come up into his chariot.

34 "I will return the cities my father took from your father," Ben-Hadad offered. "You may set up your own market areas in Damascus, as my father did in Samaria." Ahab said, "On the basis of a treaty I will set you free." So he made a treaty with him, and let him go.

35 By the word of the LORD one of the sons of the prophets said to his companion, "Strike me with your weapon," but the man refused.

36 So the prophet said, "Because you have not obeyed the LORD, as soon as you leave me a lion will kill you." And after the man went away, a lion found him and killed him.

37 The prophet found another man and said, "Strike me, please." So the man struck him and wounded him.

38 Then the prophet went and stood by the road waiting for the king. He disguised himself with his headband down over his eyes.

39 As the king passed by, the prophet called out to him, "Your servant went into the thick of the battle, and someone came to me with a captive and said, 'Guard this man. If he is missing, it will be your life for his life, or you must pay a talent of silver.'"

40 While your servant was busy here and there, the man disappeared." "That is your sentence," the king of Israel said. "You have pronounced it yourself."

41 Then the prophet quickly removed the headband from his eyes, and the king of Israel recognized him as one of the prophets.

42 He said to the king,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have set free a man I had determined should die. Therefore it is your life for his life, your people for his people.'"

43 Sullen and angry, the king of Israel went to his palace in Samaria.

6월 4일 토요일

1 Kings 21:1~16

1 Some time later there was an incident involving a vineyard belonging to Naboth

the Jezreelite. The vineyard was in Jezreel, close to the palace of Ahab king of Samaria.

- 2 Ahab said to Naboth, "Let me have your vineyard to use for a vegetable garden, since it is close to my palace. In exchange I will give you a better vineyard or, if you prefer, I will pay you whatever it is worth."
- 3 But Naboth replied,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 4 So Ahab went home, sullen and angry because Naboth the Jezreelite had said, "I will not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He lay on his bed sulking and refused to eat.
- 5 His wife Jezebel came in and asked him, "Why are you so sullen? Why won't you eat?"
- 6 He answered her, "Because I said to Naboth the Jezreelite, 'Sell me your vineyard; or if you prefer, I will give you another vineyard in its place.' But he said, 'I will not give you my vineyard.'"
- 7 Jezebel his wife said, "Is this how you act as king over Israel? Get up and eat! Cheer up. I'll get you the vineyard of Naboth the Jezreelite."
- 8 So she wrote letters in Ahab's name, placed his seal on them, and sent them to the elders and nobles who lived in Naboth's city with him.
- 9 In those letters she wrote: "Proclaim a day of fasting and seat Naboth in a prominent place among the people."
- 10 But seat two scoundrels opposite him and have them testify that he has cursed both God and the king. Then take him out and stone him to death."
- 11 So the elders and nobles who lived in Naboth's city did as Jezebel directed in the letters she had written to them.
- 12 They proclaimed a fast and seated Naboth in a prominent place among the people.
- 13 Then two scoundrels came and sat opposite him and brought charges against Naboth before the people, saying, "Naboth has cursed both God and the king." So they took him outside the city and stoned him to death.

14 Then they sent word to Jezebel: "Naboth has been stoned and is dead."

15 As soon as Jezebel heard that Naboth had been stoned to death, she said to Ahab, "Get up and take possession of the vineyard of Naboth the Jezreelite that he refused to sell you. He is no longer alive, but dead."

16 When Ahab heard that Naboth was dead, he got up and went down to take possession of Naboth's vineyard.

6월 5일 주일

1 Kings 21:17~29

17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lijah the Tishbite:

18 "Go down to meet Ahab king of Israel, who rules in Samaria. He is now in Naboth's vineyard, where he has gone to take possession of it."

19 Say to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Have you not murdered a man and seized his property?' Then say to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n the place where dogs licked up Naboth's blood, dogs will lick up your blood--yes, yours!'"

20 Ahab said to Elijah, "So you have found me, my enemy!" "I have found you," he answered, "because you have sold yourself to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21 "I am going to bring disaster on you. I will consume your descendants and cut off from Ahab every last male in Israel--slave or free."

22 I will make your house like that of Jeroboam son of Nebat and that of Baasha son of Ahijah, because you have provoked me to anger and have caused Israel to sin."

23 "And also concerning Jezebel the LORD says: 'Dogs will devour Jezebel by the wall of Jezreel.'"

24 "Dogs will eat those belonging to Ahab who die in the city, and the birds of the air will feed on those who die in the country."

25 (There was never a man like Ahab, who sold himself to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urged on by Jezebel his wife.)

26 He behaved in the vilest manner by going after idols, like the Amorites the LORD drove out before Israel.)

27 When Ahab heard these words, he tore his

clothes, put on sackcloth and fasted. He lay in sackcloth and went around meekly.

2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lijah the Tishbite:

29 "Have you noticed how Ahab has humbled himself before me? Because he has humbled himself, I will not bring this disaster in his day, but I will bring it on his house in the days of his son."

6월 6일 월요일

1 Kings 22:1~12

1 For three years there was no war between Aram and Israel.

2 But in the third year Jehoshaphat king of Judah went down to see the king of Israel.

3 The king of Israel had said to his officials, "Don't you know that Ramoth Gilead belongs to us and yet we are doing nothing to retake it from the king of Aram?"

4 So he asked Jehoshaphat, "Will you go with me to fight against Ramoth Gilead?" Jehoshaphat replied to the king of Israel, "I am as you are, my people as your people, my horses as your horses."

5 But Jehoshaphat also said to the king of Israel, "First seek the counsel of the LORD."

6 So the king of Israel brought together the prophets--about four hundred men--and asked them, "Shall I go to war against Ramoth Gilead, or shall I refrain?" "Go," they answered, "for the Lor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

7 But Jehoshaphat asked, "Is there not a prophet of the LORD here whom we can inquire of?"

8 The king of Israel answered Jehoshaphat, "There is still one man through whom we can inquire of the LORD, but I hate him because he never prophesies anything good about me, but always bad. He is Micaiah son of Imlah." "The king should not say that," Jehoshaphat replied.

9 So the king of Israel called one of his officials and said, "Bring Micaiah son of Imlah at once."

10 Dressed in their royal robes,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king of Judah were sitting on their thrones at the threshing

floor by the entrance of the gate of Samaria, with all the prophets prophesying before them.

11 Now Zedekiah son of Kenaanah had made iron horns and he declared, "This is what the LORD says: 'With these you will gore the Arameans until they are destroyed.'"

12 All the other prophets were prophesying the same thing. "Attack Ramoth Gilead and be victorious," they said, "for the LOR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

6월 7일 화요일

1 Kings 22:13~28

13 The messenger who had gone to summon Micaiah said to him, "Look, as one man the other prophets are predicting success for the king. Let your word agree with theirs, and speak favorably."

14 But Micaiah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can tell him only what the LORD tells me."

15 When he arrived, the king asked him, "Micaiah, shall we go to war against Ramoth Gilead, or shall I refrain?" "Attack and be victorious," he answered, "for the LOR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

16 The king said to him, "How many times must I make you swear to tell me nothing but the truth in the name of the LORD?"

17 Then Micaiah answered, "I saw all Israel scattered on the hill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the LORD said, 'These people have no master. Let each one go home in peace.'"

18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Didn't I tell you that he never prophesies anything good about me, but only bad?"

19 Micaiah continued, "Therefore hear the word of the LORD: I saw the LORD sitting on his throne with all the host of heaven standing around him on his right and on his left.

20 And the LORD said, 'Who will entice Ahab into attacking Ramoth Gilead and going to his death there?' "One suggested this, and another that.

21 Finally, a spirit came forward, stood before the LORD and said, 'I will entice him.'

22 "By what means?" the LORD asked. "I will go out and be a lying spirit in the mouths of all his prophets," he said. "You will succeed in enticing him," said the LORD. "Go and do it."

23 "So now the LORD has put a lying spirit in the mouths of all these prophets of yours. The LORD has decreed disaster for you."

24 Then Zedekiah son of Kenaanah went up and slapped Micaiah in the face. "Which way did the spirit from the LORD go when he went from me to speak to you?" he asked.

25 Micaiah replied, "You will find out on the day you go to hide in an inner room."

26 The king of Israel then ordered, "Take Micaiah and send him back to Amon the ruler of the city and to Joash the king's son

27 and say, 'This is what the king says: Put this fellow in prison and give him nothing but bread and water until I return safely.'"

28 Micaiah declared, "If you ever return safely, the LORD has not spoken through me." Then he added, "Mark my words, all you people!"

6월 8일 수요일

1 Kings 22:29~40

29 So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king of Judah went up to Ramoth Gilead.

30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I will enter the battle in disguise, but you wear your royal robes." So the king of Israel disguised himself and went into battle.

31 Now the king of Aram had ordered his thirty-two chariot commanders, "Do not fight with anyone, small or great, except the king of Israel."

32 When the chariot commanders saw Jehoshaphat, they thought, "Surely this is the king of Israel." So they turned to attack him, but when Jehoshaphat cried out,

33 the chariot commanders saw that he was not the king of Israel and stopped pursuing him.

34 But someone drew his bow at random and hit the king of Israel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 The king told his chariot driver, "Wheel around and get me out of

the fighting. I've been wounded."

35 All day long the battle raged, and the king was propped up in his chariot facing the Arameans. The blood from his wound ran onto the floor of the chariot, and that evening he died.

36 As the sun was setting, a cry spread through the army: "Every man to his town; everyone to his land!"

37 So the king died and was brought to Samaria, and they buried him there.

38 They washed the chariot at a pool in Samaria (where the prostitutes bathed), and the dogs licked up his blood, as the word of the LORD had declared.

39 As for the other events of Ahab's reign, including all he did, the palace he built and inlaid with ivory, and the cities he fortifie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40 Ahab rested with his fathers. And Ahaz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6월 9일 목요일

1 Kings 22:41~53

41 Jehoshaphat son of Asa became king of Judah in the fourth year of Ahab king of Israel.

42 Jehoshaphat was thirty-five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twenty-five years. His mother's name was Azubah daughter of Shilhi.

43 In everything he walked in the ways of his father Asa and did not stray from them;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an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44 Jehoshaphat was also at peace with the king of Israel.

45 As for the other events of Jehoshaphat's reign, the things he achieved and his military exploits,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46 He rid the land of the rest of the male shrine prostitutes who remained there even after the reign of his father Asa.

47 There was then no king in Edom; a deputy ruled.

48 Now Jehoshaphat built a fleet of trading ships to go to Ophir for gold, but they never set sail--they were wrecked at Ezion Geber.

49 At that time Ahaziah son of Ahab said to Jehoshaphat, "Let my men sail with your men," but Jehoshaphat refused.

50 Then Jehoshaphat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with them in the city of David his father. And Jehoram his son succeeded him.

51 Ahaziah son of Ahab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in the seventeenth year of Jehoshaphat king of Judah, and he reigned over Israel two years.

5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ecause he walked in the ways of his father and mother and in the ways of Jeroboam son of Nebat, who caused Israel to sin.

53 He served and worshiped Baal and provok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to anger, just as his father had done.

6월 10일 금요일

2 Kings 1:1~12

1 After Ahab's death, Moab rebelled against Israel.

2 Now Ahaziah had fallen through the lattice of his upper room in Samaria and injured himself. So he sent messengers, saying to them, "Go and consult Baal-Zebub, the god of Ekron, to see if I will recover from this injury."

3 But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Elijah the Tishbite, "Go up and meet the messengers of the king of Samaria and ask them,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that you are going off to consult Baal-Zebub, the god of Ekron?'"

4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will not leave the bed you are lying on. You will certainly die!' " So Elijah went.

5 When the messengers returned to the king, he asked them, "Why have you come back?"

6 "A man came to meet us," they replied. "And he said to us, 'Go back to the king who sent you and tell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that you are sending men to consult

Baal-Zebub, the god of Ekron? Therefore you will not leave the bed you are lying on. You will certainly die!' " "

7 The king asked them, "What kind of man was it who came to meet you and told you this?"

8 They replied, "He was a man with a garment of hair and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The king said, "That was Elijah the Tishbite."

9 Then he sent to Elijah a captain with his company of fifty men. The captain went up to Elijah, who was sitting on the top of a hill, and said to him, "Man of God, the king says, 'Come down!'"

10 Elijah answered the captain, "If I am a man of God, may fire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you and your fifty men!" Then fire fell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captain and his men.

11 At this the king sent to Elijah another captain with his fifty men. The captain said to him, "Man of God, this is what the king says, 'Come down at once!'"

12 "If I am a man of God," Elijah replied, "may fire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you and your fifty men!" Then the fire of God fell from heaven and consumed him and his fifty men.

6월 11일 토요일

2 Kings 1:13~18

13 So the king sent a third captain with his fifty men. This third captain went up and fell on his knees before Elijah. "Man of God," he begged, "please have respect for my life and the lives of these fifty men, your servants!"

14 See, fire has falle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first two captains and all their men. But now have respect for my life!"

15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Elijah, "Go down with him; do not be afraid of him." So Elijah got up and went down with him to the king.

16 He told the king, "This is what the LORD says: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for you to consult that you have sent messengers to consult Baal-Zebub, the god of Ekron? Because you have done this, you

will never leave the bed you are lying on. You will certainly die!"

- 17 So he died,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Elijah had spoken. Because Ahaziah had no son, Joram succeeded him as king in the second year of Jehoram son of Jehoshaphat king of Judah.
- 18 As for all the other events of Ahaziah's reign, and w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6월 12일 주일

2 Kings 2:1~14

- 1 When the LORD was about to take Elijah up to heaven in a whirlwind, Elijah and Elisha were on their way from Gilgal.
- 2 Elijah said to Elisha,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Bethel." But Elisha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down to Bethel.
- 3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Bethel came out to Elisha and asked,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Elisha replied, "but do not speak of it."
- 4 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Elisha; the LORD has sent me to Jericho."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to Jericho.
- 5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Jericho went up to Elisha and asked him,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he replied, "but do not speak of it."
- 6 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the Jordan."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 7 Fifty men of the company of the prophets went and stood at a distance, facing the place where Elijah and Elisha had stopped at the Jordan.
- 8 Elijah took his cloak, rolled it up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The water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the two of them

crossed over on dry ground.

- 9 When they had crossed, Elijah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ha replied.
- 10 "You have asked a difficult thing," Elijah said, "yet if you see me when I am taken from you, it will be yours--otherwise not."
- 11 As they were walking along and talking together, suddenly a chariot of fire and horses of fire appeared and separated the two of them, and Elijah went up to heaven in a whirlwind.
- 12 Elisha saw this and cried out,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And Elisha saw him no more. Then he took hold of his own clothes and tore them apart.
- 13 He picked up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Elijah and went back and stood on the bank of the Jordan.
- 14 Then he took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him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Where now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he asked. When he struck the water, it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he crossed over.

6월 13일 월요일

2 Kings 2:15~25

- 15 The company of the prophets from Jericho, who were watching, said, "The spirit of Elijah is resting on Elisha." And they went to meet him and bowed to the ground before him.
- 16 "Look," they said, "we your servants have fifty able men. Let them go and look for your master. Perhaps the Spirit of the LORD has picked him up and set him down on some mountain or in some valley." "No," Elisha replied, "do not send them."
- 17 But they persisted until he was too ashamed to refuse. So he said, "Send them." And they sent fifty men, who searched for three days but did not find him.
- 18 When they returned to Elisha, who was staying in Jericho, he said to them, "Didn't I tell you not to go?"
- 19 The men of the city said to Elisha, "Look, our lord, this town is well situated, as you can see, but the water is bad and the land is

unproductive."

20 "Bring me a new bowl," he said, "and put salt in it." So they brought it to him.

21 Then he went out to the spring and threw the salt into it, saying,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have healed this water. Never again will it cause death or make the land unproductive.'"

22 And the water has remained wholesome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word Elisha had spoken.

23 From there Elisha went up to Bethel. As he was walking along the road, some youths came out of the town and jeered at him. "Go on up, you baldhead!" they said. "Go on up, you baldhead!"

24 He turned around, looked at them and called down a curse on them in the name of the LORD. Then two bears came out of the woods and mauled forty-two of the youths.

25 And he went on to Mount Carmel and from there returned to Samaria.

6월 14일 화요일

2 Kings 3:1~12

1 Joram son of Ahab became king of Israel in Samaria in the eighteenth year of Jehoshaphat king of Judah, and he reigned twelve years.

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as his father and mother had done. He got rid of the sacred stone of Baal that his father had made.

3 Nevertheless he clung to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m.

4 Now Mesha king of Moab raised sheep, and he had to supply the king of Israel with a hundred thousand lambs and with the wool of a hundred thousand rams.

5 But after Ahab died, the king of Moab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Israel.

6 So at that time King Joram set out from Samaria and mobilized all Israel.

7 He also sent this message to Jehoshaphat king of Judah: "The king of Moab has rebelled against me. Will you go with me to fight against Moab?" "I will go with you," he

replied. "I am as you are, my people as your people, my horses as your horses."

8 "By what route shall we attack?" he asked. "Through the Desert of Edom," he answered.

9 So the king of Israel set out with the king of Judah and the king of Edom. After a roundabout march of seven days, the army had no more water for themselves or for the animals with them.

10 "What!" exclaimed the king of Israel. "Has the LORD called us three kings together only to hand us over to Moab?"

11 But Jehoshaphat asked, "Is there no prophet of the LORD here, that we may inquire of the LORD through him?" An officer of the king of Israel answered, "Elisha son of Shaphat is here. He used to pour water on the hands of Elijah."

12 Jehoshaphat said, "The word of the LORD is with him." So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and the king of Edom went down to him.

6월 15일 수요일

2 Kings 3:13~27

13 Elisha said to the king of Israel, "What do we have to do with each other? Go to the prophets of your father and the prophets of your mother." "No," the king of Israel answered, "because it was the LORD who called us three kings together to hand us over to Moab."

14 Elisha said, "As surely as the LORD Almighty lives, whom I serve, if I did not have respect for the presence of Jehoshaphat king of Judah, I would not look at you or even notice you.

15 But now bring me a harpist." While the harpist was playing,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Elisha

16 and he sa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Make this valley full of ditches.

17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will see neither wind nor rain, yet this valley will be filled with water, and you, your cattle and your other animals will drink.

18 This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the LORD; he will also hand Moab over to you.

19 You will overthrow every fortified city and every major town. You will cut down every good tree, stop up all the springs, and ruin every good field with stones."

20 The next morning, about the time for offering the sacrifice, there it was--water flowing from the direction of Edom! And the land was filled with water.

21 Now all the Moabites had heard that the kings had come to fight against them; so every man, young and old, who could bear arms was called up and stationed on the border.

22 When they got up early in the morning, the sun was shining on the water. To the Moabites across the way, the water looked red--like blood.

23 "That's blood!" they said. "Those kings must have fought and slaughtered each other. Now to the plunder, Moab!"

24 But when the Moabites came to the camp of Israel, the Israelites rose up and fought them until they fled. And the Israelites invaded the land and slaughtered the Moabites.

25 They destroyed the towns, and each man threw a stone on every good field until it was covered. They stopped up all the springs and cut down every good tree. Only Kir Hareseth was left with its stones in place, but men armed with slings surrounded it and attacked it as well.

26 When the king of Moab saw that the battle had gone against him, he took with him seven hundred swordsmen to break through to the king of Edom, but they failed.

27 Then he took his firstborn son, who was to succeed him as king, and offered him as a sacrifice on the city wall. The fury against Israel was great; they withdrew and returned to their own land.

6월 16일 목요일

2 Kings 4:1~16

1 The wife of a ma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cried out to Elisha, "Your servant my husband is dead, and you know that he revered the LORD. But now his creditor is

coming to take my two boys as his slaves."

2 Elisha replied to her, "How can I help you? Tell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she said, "except a little oil."

3 Elisha said, "Go around and ask all your neighbors for empty jars. Don't ask for just a few.

4 Then go inside and shut the door behind you and your sons. Pour oil into all the jars, and as each is filled, put it to one side."

5 She left him and afterward shut the door behind her and her sons. They brought the jars to her and she kept pouring.

6 When all the jars were full, she said to her son, "Bring me another one." But he replied, "There is not a jar left." Then the oil stopped flowing.

7 She went and told the man of God, and he said, "Go, sell the oil and pay your debts. You and your sons can live on what is left."

8 One day Elisha went to Shunem. And a well-to-do woman was there, who urged him to stay for a meal. So whenever he came by, he stopped there to eat.

9 She said to her husband, "I know that this man who often comes our way is a holy man of God.

10 Let's make a small room on the roof and put in it a bed and a table, a chair and a lamp for him. Then he can stay there whenever he comes to us."

11 One day when Elisha came, he went up to his room and lay down there.

12 He said to his servant Gehazi, "Call the Shunammite." So he called her, and she stood before him.

13 Elisha said to him, "Tell her, 'You have gone to all this trouble for us. Now what can be done for you? Can we speak on your behalf to the king or the commander of the army?'" She replied, "I have a home among my own people."

14 "What can be done for her?" Elisha asked. Gehazi said, "Well, she has no son and her husband is old."

15 Then Elisha said, "Call her." So he called her, and she stood in the doorway.

16 "About this time next year," Elisha said, "you

will hold a son in your arms." "No, my lord," she objected. "Don't mislead your servant, O man of God!"

6월 17일 금요일

2 Kings 4:17~37

17 But the woman became pregnant, and the next year about that same time she gave birth to a son, just as Elisha had told her.

18 The child grew, and one day he went out to his father, who was with the reapers.

19 "My head! My head!" he said to his father. His father told a servant, "Carry him to his mother."

20 After the servant had lifted him up and carried him to his mother, the boy sat on her lap until noon, and then he died.

21 She went up and laid him on the bed of the man of God, then shut the door and went out.

22 She called her husband and said, "Please send me one of the servants and a donkey so I can go to the man of God quickly and return."

23 "Why go to him today?" he asked. "It's not the New Moon or the Sabbath." "It's all right," she said.

24 She saddled the donkey and said to her servant, "Lead on; don't slow down for me unless I tell you."

25 So she set out and came to the man of God at Mount Carmel. When he saw her in the distance, the man of God said to his servant Gehazi, "Look! There's the Shunammite!"

26 Run to meet her and ask her, 'Are you all right? Is your husband all right? Is your child all right?'" "Everything is all right," she said.

27 When she reached the man of God at the mountain, she took hold of his feet. Gehazi came over to push her away, but the man of God said, "Leave her alone! She is in bitter distress, but the LORD has hidden it from me and has not told me why."

28 "Did I ask you for a son, my lord?" she said. "Didn't I tell you, 'Don't raise my hopes?'"

29 Elisha said to Gehazi, "Tuck your cloak into your belt, take my staff in your hand and run. If you meet anyone, do not greet him, and if anyone greets you, do not answer.

Lay my staff on the boy's face."

30 But the child's mother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he got up and followed her.

31 Gehazi went on ahead and laid the staff on the boy's face, but there was no sound or response. So Gehazi went back to meet Elisha and told him, "The boy has not awakened."

32 When Elisha reached the house, there was the boy lying dead on his couch.

33 He went in, shut the door on the two of them and prayed to the LORD.

34 Then he got on the bed and lay upon the boy, mouth to mouth, eyes to eyes, hands to hands. As he stretched himself out upon him, the boy's body grew warm.

35 Elisha turned away and walked back and forth in the room and then got on the bed and stretched out upon him once more. The boy sneezed seven times and opened his eyes.

36 Elisha summoned Gehazi and said, "Call the Shunammite." And he did. When she came, he said, "Take your son."

37 She came in, fell at his feet and bowed to the ground. Then she took her son and went out.

6월 18일 토요일

2 Kings 4:38~44

38 Elisha returned to Gilgal and there was a famine in that region. While the company of the prophets was meeting with him, he said to his servant, "Put on the large pot and cook some stew for these men."

39 One of them went out into the fields to gather herbs and found a wild vine. He gathered some of its gourds and filled the fold of his cloak. When he returned, he cut them up into the pot of stew, though no one knew what they were.

40 The stew was poured out for the men, but as they began to eat it, they cried out, "O man of God, there is death in the pot!" And they could not eat it.

41 Elisha said, "Get some flour." He put it into the pot and said, "Serve it to the people to eat." And there was nothing harmful in the pot.

- 42 A man came from Baal Shalishah, bringing the man of God twenty loaves of barley bread baked from the first ripe grain, along with some heads of new grain. "Give it to the people to eat," Elisha said.
- 43 "How can I set this before a hundred men?" his servant asked. But Elisha answered, "Give it to the people to eat.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y will eat and have some left over.'"
- 44 Then he set it before them, and they ate and had some left over,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6월 19일 주일

2 Kings 5:1~14

- 1 Now Naaman was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He was a great man in the sight of his master and highly regarded, because through him the LORD had given victory to Aram. He was a valiant soldier, but he had leprosy.
- 2 Now bands from Aram had gone out and had taken captive a young girl from Israel, and she served Naaman's wife.
- 3 She said to her mistress, "If only my master would see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 4 Naaman went to his master and told him what the girl from Israel had said.
- 5 "By all means, go," the king of Aram replied. "I will send a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So Naaman left, taking with him ten talents of silver, six thousand shekels of gold and ten sets of clothing.
- 6 The letter that he took to the king of Israel read: "With this letter I am sending my servant Naaman to you so that you may cure him of his leprosy."
- 7 As soon as the king of Israel read the letter, he tore his robes and said, "Am I God? Can I kill and bring back to life? Why does this fellow send someone to me to be cured of his leprosy? See how he is trying to pick a quarrel with me!"
- 8 When Elisha the man of God heard that the king of Israel had torn his robes, he sent him this message: "Why have you torn your robes? Have the man come to me and he

will know that there is a prophet in Israel."

- 9 So Naaman went with his horses and chariots and stopped at the door of Elisha's house.
- 10 Elisha sent a messenger to say to him, "Go, wash your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nd your flesh will be restored and you will be cleansed."
- 11 But Naaman went away angry and sai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wave his hand over the spot and cure me of my leprosy."
- 12 Are not Abana and Pharpar, the rivers of Damascus, better than any of the waters of Israel? Couldn't I wash in them and be cleansed?" So he turned and went off in a rage.
- 13 Naaman's servants went to him and said, "My father, if the prophet had told you to do some great thing, would you not have done it? How much more, then, when he tells you, 'Wash and be cleansed!'"
- 14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in the Jordan seven times, as the man of God had told him, and his flesh was restored and became clean like that of a young boy.

6월 20일 월요일

2 Kings 5:15~27

- 15 Then Naaman and all his attendants went back to the man of God. He stood before him and said,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world except in Israel. Please accept now a gift from your servant."
- 16 The prophet answer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whom I serve, I will not accept a thing." And even though Naaman urged him, he refused.
- 17 "If you will not," said Naaman, "please let me, your servant, be given as much earth as a pair of mules can carry, for your servant will never again mak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to any other god but the LORD."
- 18 But may the LORD forgive your servant for this one thing: When my master enters the temple of Rimmon to bow down and he is leaning on my arm and I bow there also--when I bow down in the temple of Rimmon,

may the LORD forgive your servant for this."

- 19 "Go in peace," Elisha said. After Naaman had traveled some distance,
- 20 Gehazi, the servant of Elisha the man of God, said to himself, "My master was too easy on Naaman, this Aramean, by not accepting from him what he brought.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 will run after him and get something from him."
- 21 So Gehazi hurried after Naaman. When Naaman saw him running toward him, he got down from the chariot to meet him. "Is everything all right?" he asked.
- 22 "Everything is all right," Gehazi answered. "My master sent me to say, 'Two young me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have just come to me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Please give them a talent of silver and two sets of clothing.'"
- 23 "By all means, take two talents," said Naaman. He urged Gehazi to accept them, and then tied up the two talents of silver in two bags, with two sets of clothing. He gave them to two of his servants, and they carried them ahead of Gehazi.
- 24 When Gehazi came to the hill, he took the things from the servants and put them away in the house. He sent the men away and they left.
- 25 Then he went in and stood before his master Elisha. "Where have you been, Gehazi?" Elisha asked. "Your servant didn't go anywhere," Gehazi answered.
- 26 But Elisha said to him, "Was not my spirit with you when the man got down from his chariot to meet you? Is this the time to take money, or to accept clothes, olive groves, vineyards, flocks, herds, or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 27 Naaman's leprosy will cling to you and to your descendants forever." Then Gehazi went from Elisha's presence and he was leprous, as white as snow.

6월 21일 화요일

2 Kings 6:1~13

- 1 The company of the prophets said to Elisha, "Look, the place where we meet with you is

too small for us.

- 2 Let us go to the Jordan, where each of us can get a pole; and let us build a place there for us to live." And he said, "Go."
- 3 Then one of them said, "Won't you please come with your servants?" "I will," Elisha replied.
- 4 And he went with them. They went to the Jordan and began to cut down trees.
- 5 As one of them was cutting down a tree, the iron axhead fell into the water. "Oh, my lord," he cried out, "it was borrowed!"
- 6 The man of God asked, "Where did it fall?" When he showed him the place, Elisha cut a stick and threw it there, and made the iron float.
- 7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 8 Now the king of Aram was at war with Israel. After conferring with his officers, he said, "I will set up my camp in such and such a place."
- 9 The man of God sent word to the king of Israel: "Beware of passing that place, because the Arameans are going down there."
- 10 So the king of Israel checked on the place indicated by the man of God. Time and again Elisha warned the king, so that he was on his guard in such places.
- 11 This enraged the king of Aram. He summoned his officers and demanded of them, "Will you not tell me which of us is on the side of the king of Israel?"
- 12 "None of us, my lord the king," said one of his officers, "but Elisha, the prophet who is in Israel, tells the king of Israel the very words you speak in your bedroom."
- 13 "Go, find out where he is," the king ordered, "so I can send men and capture him." The report came back: "He is in Dothan."

6월 22일 수요일

2 Kings 6:14~23

- 14 Then he sent horses and chariots and a strong force there. They went by night and surrounded the city.
- 15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got up and went out early the next morning, an

-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had surrounded the city. "Oh, my lord, what shall we do?" the servant asked.
- 16 "Don't be afraid," the prophet answere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 17 And Elisha prayed, "O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Then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 18 As the enemy came down toward him, Elisha prayed to the LORD,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 So he struck them with blindness, as Elisha had asked.
- 19 Elisha told them, "This is not the road and this is not the city. Follow me, and I will lead you to the man you are looking for." And he led them to Samaria.
- 20 After they entered the city, Elisha said, "LORD, open the eyes of these men so they can see." Then the LORD opened their eyes and they looked, and there they were, inside Samaria.
- 21 When the king of Israel saw them, he asked Elisha, "Shall I kill them, my father? Shall I kill them?"
- 22 "Do not kill them," he answered. "Would you kill men you have captured with your own sword or bow? Set food and water before them so that they may eat and drink and then go back to their master."
- 23 So he prepared a great feast for them, and after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he sent them away, and they returned to their master. So the bands from Aram stopped raiding Israel's territory.

6월 23일 목요일

2 Kings 6:24~33

- 24 Some time later, Ben-Hadad king of Aram mobilized his entire army and marched up and laid siege to Samaria.
- 25 There was a great famine in the city; the siege lasted so long that a donkey's head sold for eighty shekels of silver, and a quarter of a cab of seed pods for five shekels.
- 26 As the king of Israel was passing by on the

wall, a woman cried to him, "Help me, my lord the king!"

- 27 The king replied, "If the LORD does not help you, where can I get help for you? From the threshing floor? From the winepress?"
- 28 Then he asked her, "What's the matter?" She answered, "This woman said to me, 'Give up your son so we may eat him today, and tomorrow we'll eat my son.'"
- 29 So we cooked my son and ate him. The next day I said to her, 'Give up your son so we may eat him,' but she had hidden him."
- 30 When the king heard the woman's words, he tore his robes. As he went along the wall, the people looked, and there, underneath, he had sackcloth on his body.
- 31 He said, "May Go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the head of Elisha son of Shaphat remains on his shoulders today!"
- 32 Now Elisha was sitting in his house, and the elders were sitting with him. The king sent a messenger ahead, but before he arrived, Elisha said to the elders, "Don't you see how this murderer is sending someone to cut off my head? Look, when the messenger comes, shut the door and hold it shut against him. Is not the sound of his master's footsteps behind him?"
- 33 While he was still talking to them, the messenger came down to him. And the king said, "This disaster is from the LORD. Why should I wait for the LORD any longer?"

2 Kings 7:1~2

- 1 Elisha said, "Hear the word of the LORD.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this time tomorrow, a seah of flour will sell for a shekel and two seahs of barley for a shekel at the gate of Samaria."
- 2 The officer on whose arm the king was leaning said to the man of God, "Look, even if the LORD should open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could this happen?" "You will see it with your own eyes," answered Elisha, "but you will not eat any of it!"

6월 24일 금요일

2 Kings 7:3~20

- 3 Now there were four men with leprosy at

-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They said to each other, "Why stay here until we die?"
- 4 If we say, 'We'll go into the city'-the famine is there, and we will die. And if we stay here, we will die. So let's go over to the camp of the Arameans and surrender. If they spare us, we live; if they kill us, then we die."
- 5 At dusk they got up and went to the camp of the Arameans. When they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not a man was there,
- 6 for the Lord had caused the Arameans to hear the sound of chariots and horses and a great army, so that they said to one another, "Look, the king of Israel has hired the Hittite and Egyptian kings to attack us!"
- 7 So they got up and fled in the dusk and abandoned their tents and their horses and donkeys. They left the camp as it was and ran for their lives.
- 8 The men who had leprosy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and entered one of the tents. They ate and drank, and carried away silver, gold and clothes, and went off and hid them. They returned and entered another tent and took some things from it and hid them also.
- 9 Then they said to each other, "We're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and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Let's go at once and report this to the royal palace."
- 10 So they went and called out to the city gatekeepers and told them, "We went into the Aramean camp and not a man was there--not a sound of anyone--only tethered horses and donkeys, and the tents left just as they were."
- 11 The gatekeepers shouted the news, and it was reported within the palace.
- 12 The king got up in the night and said to his officers, "I will tell you what the Arameans have done to us. They know we are starving; so they have left the camp to hide in the countryside, thinking, 'They will surely come out, and then we will take them alive and get into the city.'"
- 13 One of his officers answered, "Have some men take five of the horses that are left in

- the city. Their plight will be like that of all the Israelites left here--yes, they will only be like all these Israelites who are doomed. So let us send them to find out what happened."
- 14 So they selected two chariots with their horses, and the king sent them after the Aramean army. He commanded the drivers, "Go and find out what has happened."
- 15 They followed them as far as the Jordan, and they found the whole road strewn with the clothing and equipment the Arameans had thrown away in their headlong flight. So the messengers returned and reported to the king.
- 16 Then the people went out and plundered the camp of the Arameans. So a seah of flour sold for a shekel, and two seahs of barley sold for a shekel, as the LORD had said.
- 17 Now the king had put the officer on whose arm he leaned in charge of the gate, and the people trampled him in the gateway, and he died, just as the man of God had foretold when the king came down to his house.
- 18 It happened as the man of God had said to the king: "About this time tomorrow, a seah of flour will sell for a shekel and two seahs of barley for a shekel at the gate of Samaria."
- 19 The officer had said to the man of God, "Look, even if the LORD should open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could this happen?" The man of God had replied, "You will see it with your own eyes, but you will not eat any of it!"
- 20 And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to him, for the people trampled him in the gateway, and he died.

2 Kings 8:1~6

- 1 Now Elisha had said to the woman whose son he had restored to life, "Go away with your family and stay for a while wherever you can, because the LORD has decreed a famine in the land that will last seven years."
- 2 The woman proceeded to do as the man of God said. She and her family went away and stayed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seven years.
- 3 At the end of the seven years she came back

from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went to the king to beg for her house and land.

- 4 The king was talking to Gehazi,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and had said, "Tell me about all the great things Elisha has done."
- 5 Just as Gehazi was telling the king how Elisha had restored the dead to life, the woman whose son Elisha had brought back to life came to beg the king for her house and land. Gehazi said, "This is the woman, my lord the king, and this is her son whom Elisha restored to life."
- 6 The king asked the woman about it, and she told him. Then he assigned an official to her case and said to him, "Give back everything that belonged to her, including all the income from her land from the day she left the country until now."

6월 25일 토요일

2 Kings 8:7~24

- 7 Elisha went to Damascus, and Ben-Hadad king of Aram was ill. When the king was told, "The man of God has come all the way up here,"
- 8 he said to Hazael, "Take a gift with you and go to meet the man of God. Consult the LORD through him; ask him, 'Will I recover from this illness?'"
- 9 Hazael went to meet Elisha, taking with him as a gift forty camel-loads of all the finest wares of Damascus. He went in and stood before him, and said, "Your son Ben-Hadad king of Aram has sent me to ask, 'Will I recover from this illness?'"
- 10 Elisha answered, "Go and say to him, 'You will certainly recover'; but the LORD has revealed to me that he will in fact die."
- 11 He stared at him with a fixed gaze until Hazael felt ashamed. Then the man of God began to weep.
- 12 "Why is my lord weeping?" asked Hazael. "Because I know the harm you will do to the Israelites," he answered. "You will set fire to their fortified places, kill their young men with the sword, dash their little children to the ground, and rip open their pregnant women."
- 13 Hazael said, "How could your servant, a mere dog, accomplish such a feat?" "The LORD has shown me that you will become king of Aram," answered Elisha.
- 14 Then Hazael left Elisha and returned to his master. When Ben-Hadad asked, "What did Elisha say to you?" Hazael replied, "He told me that you would certainly recover."
- 15 But the next day he took a thick cloth, soaked it in water and spread it over the king's face, so that he died. Then Hazael succeeded him as king.
- 16 In the fifth year of Joram son of Ahab king of Israel, when Jehoshaphat was king of Judah, Jehoram son of Jehoshaphat began his reign as king of Judah.
- 17 He was thir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eight years.
- 18 He walked in the ways of the kings of Israel, as the house of Ahab had done, for he married a daughter of Ahab.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 19 Nevertheless, for the sake of his servant David, the LORD was not willing to destroy Judah. He had promised to maintain a lamp for David and his descendants forever.
- 20 In the time of Jehoram, Edom rebelled against Judah and set up its own king.
- 21 So Jehoram went to Zair with all his chariots. The Edomites surrounded him and his chariot commanders, but he rose up and broke through by night; his army, however, fled back home.
- 22 To this day Edom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Judah. Libnah revolted at the same time.
- 23 As for the other events of Jehoram's reign, and all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 24 Jehoram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with them in the City of David. And Ahaz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6월 26일 주일

2 Kings 8:25~29

- 25 In the twelfth year of Joram son of Ahab king of Israel, Ahaziah son of Jehoram king of Judah began to reign.
- 26 Ahaziah was twenty-two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one year. His mother's name was Athaliah, a granddaughter of Omri king of Israel.

27 He walked in the ways of the house of Ahab and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s the house of Ahab had done, for he was related by marriage to Ahab's family.

28 Ahaziah went with Joram son of Ahab to war against Hazael king of Aram at Ramoth Gilead. The Arameans wounded Joram;

29 so King Joram returned to Jezreel to recover from the wounds the Arameans had inflicted on him at Ramoth in his battle with Hazael king of Aram. Then Ahaziah son of Jehoram king of Judah went down to Jezreel to see Joram son of Ahab, because he had been wounded.

2 Kings 9:1~10

1 The prophet Elisha summoned a ma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nd said to him, "Tuck your cloak into your belt, take this flask of oil with you and go to Ramoth Gilead.

2 When you get there, look for Jehu son of Jehoshaphat, the son of Nimshi. Go to him, get him away from his companions and take him into an inner room.

3 Then take the flask and pour the oil on his head and decla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noint you king over Israel.' Then open the door and run; don't delay!"

4 So the young man, the prophet, went to Ramoth Gilead.

5 When he arrived, he found the army officers sitting together. "I have a message for you, commander," he said. "For which of us?" asked Jehu. "For you, commander," he replied.

6 Jehu got up and went into the house. Then the prophet poured the oil on Jehu's head and declare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anoint you king over the LORD's people Israel.

7 You are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your master, and I will avenge the blood of my servants the prophets and the blood of all the LORD's servants shed by Jezebel.

8 The whole house of Ahab will perish. I will

cut off from Ahab every last male in Israel--slave or free.

9 I will make the house of Ahab like the house of Jeroboam son of Nebat and like the house of Baasha son of Ahijah.

10 As for Jezebel, dogs will devour her on the plot of ground at Jezreel, and no one will bury her.' " Then he opened the door and ran.

6월 27일 월요일

2 Kings 9:11~29

11 When Jehu went out to his fellow officers, one of them asked him, "Is everything all right? Why did this madman come to you?" "You know the man and the sort of things he says," Jehu replied.

12 "That's not true!" they said. "Tell us." Jehu said, "Here is what he told m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noint you king over Israel.'"

13 They hurried and took their cloaks and spread them under him on the bare steps. Then they blew the trumpet and shouted, "Jehu is king!"

14 So Jehu son of Jehoshaphat, the son of Nimshi, conspired against Joram. (Now Joram and all Israel had been defending Ramoth Gilead against Hazael king of Aram, but King Joram had returned to Jezreel to recover from the wounds the Arameans had inflicted on him in the battle with Hazael king of Aram.) Jehu said, "If this is the way you feel, don't let anyone slip out of the city to go and tell the news in Jezreel."

15 Then he got into his chariot and rode to Jezreel, because Joram was resting there and Ahaziah king of Judah had gone down to see him.

16 When the lookout standing on the tower in Jezreel saw Jehu's troops approaching, he called out, "I see some troops coming." "Get a horseman," Joram ordered. "Send him to meet them and ask, 'Do you come in peace?'"

17 The horseman rode off to meet Jehu and said, "This is what the king says: 'Do you come in peace?'" "What do you have to do with peace?" Jehu replied. "Fall in behind me." The lookout reported, "The messenger has reached them, but he isn't coming

back."

19 So the king sent out a second horseman. When he came to them he said, "This is what the king says: 'Do you come in peace?' " Jehu replied, "What do you have to do with peace? Fall in behind me."

20 The lookout reported, "He has reached them, but he isn't coming back either. The driving is like that of Jehu son of Nimshi—he drives like a madman."

21 "Hitch up my chariot," Joram ordered. And when it was hitched up, Joram king of Israel and Ahaziah king of Judah rode out, each in his own chariot, to meet Jehu. They met him at the plot of ground that had belonged to Naboth the Jezreelite.

22 When Joram saw Jehu he asked, "Have you come in peace, Jehu?" "How can there be peace," Jehu replied, "as long as all the idolatry and witchcraft of your mother Jezebel abound?"

23 Joram turned about and fled, calling out to Ahaziah, "Treachery, Ahaziah!"

24 Then Jehu drew his bow and shot Joram between the shoulders. The arrow pierced his heart and he slumped down in his chariot.

25 Jehu said to Bidkar, his chariot officer, "Pick him up and throw him on the field that belonged to Naboth the Jezreelite. Remember how you and I were riding together in chariots behind Ahab his father when the LORD made this prophecy about him:

26 'Yesterday I saw the blood of Naboth and the blood of his sons,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surely make you pay for it on this plot of ground, declares the LORD.' Now then, pick him up and throw him on that plot,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27 When Ahaziah king of Judah saw what had happened, he fled up the road to Beth Haggan. Jehu chased him, shouting, "Kill him too!" They wounded him in his chariot on the way up to Gur near Ibleam, but he escaped to Megiddo and died there.

28 His servants took him by chariot to Jerusalem and buried him with his fathers

in his tomb in the City of David.

29 (In the eleventh year of Joram son of Ahab, Ahaziah had become king of Judah.)

6월 28일 화요일

2 Kings 9:30~37

30 Then Jehu went to Jezreel. When Jezebel heard about it, she painted her eyes, arranged her hair and looked out of a window.

31 As Jehu entered the gate, she asked, "Have you come in peace, Zimri, you murderer of your master?"

32 He looked up at the window and called out, "Who is on my side? Who?" Two or three eunuchs looked down at him.

33 "Throw her down!" Jehu said. So they threw her down, and some of her blood splattered the wall and the horses as they trampled her underfoot.

34 Jehu went in and ate and drank. "Take care of that cursed woman," he said, "and bury her, for she was a king's daughter."

35 But when they went out to bury her, they found nothing except her skull, her feet and her hands.

36 They went back and told Jehu, who said,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through his servant Elijah the Tishbite: On the plot of ground at Jezreel dogs will devour Jezebel's flesh.

37 Jezebel's body will be like refuse on the ground in the plot at Jezreel, so that no one will be able to say, 'This is Jezebel.' "

2 Kings 10:1~14

1 Now there were in Samaria seventy sons of the house of Ahab. So Jehu wrote letters and sent them to Samaria: to the officials of Jezreel, to the elders and to the guardians of Ahab's children. He said,

2 "As soon as this letter reaches you, since your master's sons are with you and you have chariots and horses, a fortified city and weapons,

3 choose the best and most worthy of your master's sons and set him on his father's throne. Then fight for your master's house."

4 But they were terrified and said, "If two

kings could not resist him, how can we?"

- 5 So the palace administrator, the city governor, the elders and the guardians sent this message to Jehu: "We are your servants and we will do anything you say. We will not appoint anyone as king; you do whatever you think best."
- 6 Then Jehu wrote them a second letter, saying, "If you are on my side and will obey me, take the heads of your master's sons and come to me in Jezreel by this time tomorrow." Now the royal princes, seventy of them, were with the leading men of the city, who were rearing them.
- 7 When the letter arrived, these men took the princes and slaughtered all seventy of them. They put their heads in baskets and sent them to Jehu in Jezreel.
- 8 When the messenger arrived, he told Jehu, "They have brought the heads of the princes." Then Jehu ordered, "Put them in two piles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 until morning."
- 9 The next morning Jehu went out. He stood before all the people and said, "You are innocent. It was I who conspired against my master and killed him, but who killed all these?"
- 10 Know then, that not a word the LORD has spoken against the house of Ahab will fail. The LORD has done what he promised through his servant Elijah."
- 11 So Jehu killed everyone in Jezreel who remained of the house of Ahab, as well as all his chief men, his close friends and his priests, leaving him no survivor.
- 12 Jehu then set out and went toward Samaria. At Beth Eked of the Shepherds,
- 13 he met some relatives of Ahaziah king of Judah and asked, "Who are you?" They said, "We are relatives of Ahaziah, and we have come down to greet the families of the king and of the queen mother."
- 14 "Take them alive!" he ordered. So they took them alive and slaughtered them by the well of Beth Eked--forty-two men. He left no survivor.

6월 29일 수요일

2 Kings 10:15~36

- 15 After he left there, he came upon Jehonadab son of Recab, who was on his way to meet him. Jehu greeted him and said, "Are you in accord with me, as I am with you?" "I am," Jehonadab answered. "If so," said Jehu, "give me your hand." So he did, and Jehu helped him up into the chariot.
- 16 Jehu said, "Come with me and see my zeal for the LORD." Then he had him ride along in his chariot.
- 17 When Jehu came to Samaria, he killed all who were left there of Ahab's family; he destroyed them,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spoken to Elijah.
- 18 Then Jehu brought all the people together and said to them, "Ahab served Baal a little; Jehu will serve him much."
- 19 Now summon all the prophets of Baal, all his ministers and all his priests. See that no one is missing, because I am going to hold a great sacrifice for Baal. Anyone who fails to come will no longer live." But Jehu was acting deceptively in order to destroy the ministers of Baal.
- 20 Jehu said, "Call an assembly in honor of Baal." So they proclaimed it.
- 21 Then he sent word throughout Israel, and all the ministers of Baal came; not one stayed away. They crowded into the temple of Baal until it was full from one end to the other.
- 22 And Jehu said to the keeper of the wardrobe, "Bring robes for all the ministers of Baal." So he brought out robes for them.
- 23 Then Jehu and Jehonadab son of Recab went into the temple of Baal. Jehu said to the ministers of Baal, "Look around and see that no servants of the LORD are here with you--only ministers of Baal."
- 24 So they went in to make sacrifices and burnt offerings. Now Jehu had posted eighty men outside with this warning: "If one of you lets any of the men I am placing in your hands escape, it will be your life for his life."
- 25 As soon as Jehu had finished making the burnt offering, he ordered the guards and officers: "Go in and kill them; let no one escape." So they cut them down with the

sword. The guards and officers threw the bodies out and then entered the inner shrine of the temple of Baal.

- 26 They brought the sacred stone out of the temple of Baal and burned it.
- 27 They demolished the sacred stone of Baal and tore down the temple of Baal, and people have used it for a latrine to this day.
- 28 So Jehu destroyed Baal worship in Israel.
- 29 However,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son of Nebat,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the worship of the golden calves at Bethel and Dan.
- 30 The LORD said to Jehu, "Because you have done well in accomplishing what is right in my eyes and have done to the house of Ahab all I had in mind to do, your descendants will sit on the throne of Israel to the fourth generation."
- 31 Yet Jehu was not careful to keep the law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with all his heart.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 32 In those days the LORD began to reduce the size of Israel. Hazael overpowered the Israelites throughout their territory east of the Jordan in all the land of Gilead (the region of Gad, Reuben and Manasseh), from Aroer by the Arnon Gorge through Gilead to Bashan.
- 34 As for the other events of Jehu's reign, all he did, and all his achievements,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the kings of Israel?
- 35 Jehu rested with his fathers and was buried in Samaria. And Jehoahaz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36 The time that Jehu reigned over Israel in Samaria was twenty-eight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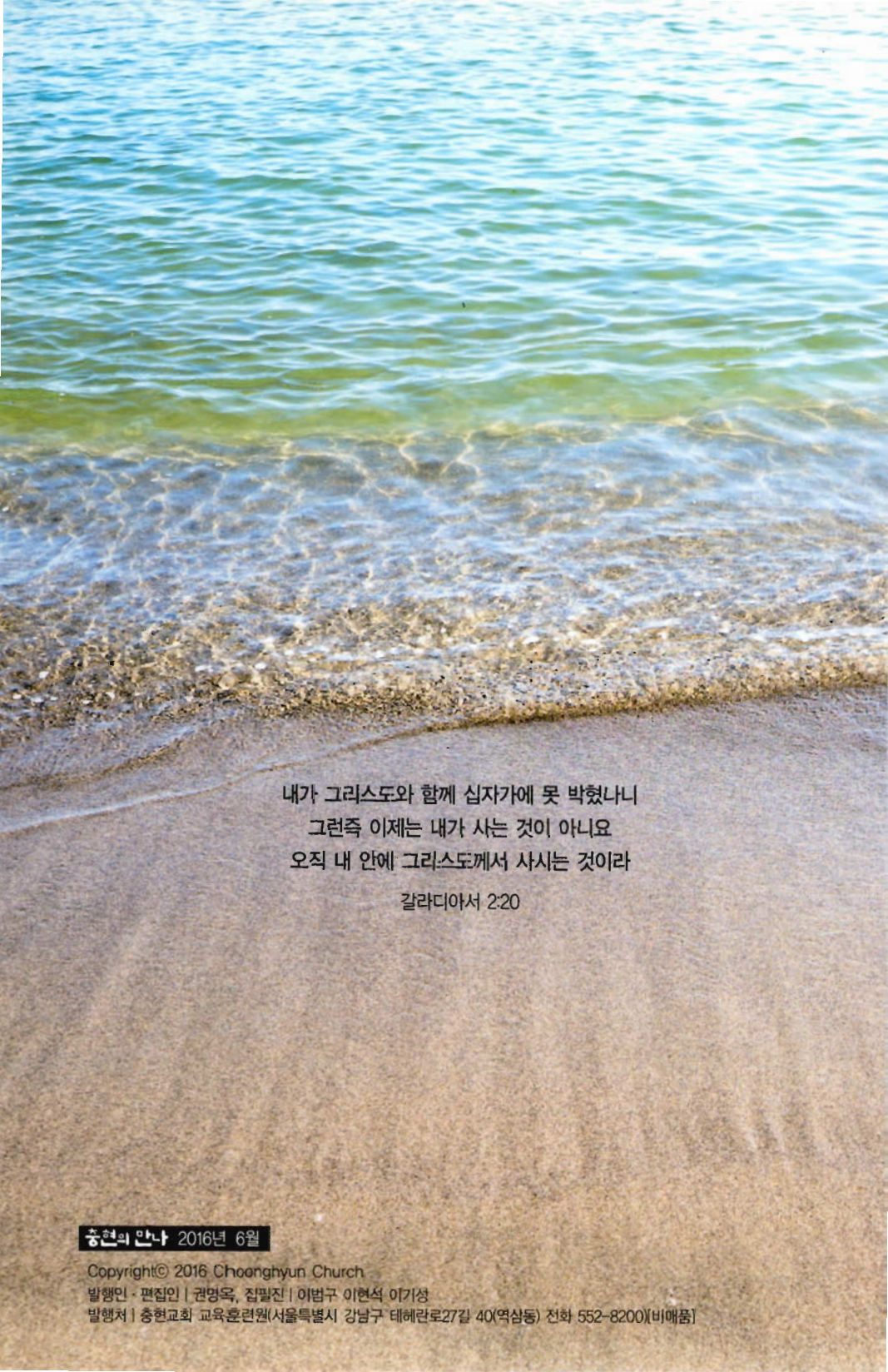
6월 30일 목요일

2 Kings 11:1~12

- 1 When Athaliah the mother of Ahaziah saw that her son was dead, she proceeded to destroy the whole royal family.
- 2 But Jehoshеba, the daughter of King Jehoram and sister of Ahaziah, took Joash son of Ahaziah and stole him away from

among the royal princes, who were about to be murdered. She put him and his nurse in a bedroom to hide him from Athaliah; so he was not killed.

- 3 He remained hidden with his nurse at the temple of the LORD for six years while Athaliah ruled the land.
- 4 In the seventh year Jehoiada sent for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the Carites and the guards and had them brought to him at the temple of the LORD. He made a covenant with them and put them under oath at the temple of the LORD. Then he showed them the king's son.
- 5 He commanded them, saying, "This is what you are to do: You who are in the three companies that are going on duty on the Sabbath--a third of you guarding the royal palace,
- 6 a third at the Sur Gate, and a third at the gate behind the guard, who take turns guarding the temple-
- 7 and you who are in the other two companies that normally go off Sabbath duty are all to guard the temple for the king.
- 8 Station yourselves around the king, each man with his weapon in his hand. Anyone who approaches your ranks must be put to death. Stay close to the king wherever he goes."
- 9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hundred did just as Jehoiada the priest ordered. Each one took his men--those who were going on duty on the Sabbath and those who were going off duty--and came to Jehoiada the priest.
- 10 Then he gave the commanders the spears and shields that had belonged to King David and that were in the temple of the LORD.
- 11 The guards, each with his weapon in his hand, stationed themselves around the king--near the altar and the temple, from the south side to the north side of the temple.
- 12 Jehoiada brought out the king's son and put the crown on him; he presented him with a copy of the covenant and proclaimed him king. They anointed him, and the people clapped their hands and shouted, "Long live the king!"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6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이범구 이현석 이기성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